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Mr. President

정기용 / 기용건축
by Chung Gu-Yon

안녕하십니까? 국난 극복을 위해 선두에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잠깐 '경제' 문제를 접어두시고 한 건축인의 몇 가지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전 초등학교 4학년 때, 대구에서 올라오신 한의사이신 친척할아버지께서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셔야 한다며 선물로 드릴 칠첩반상기를 저에게 들려 주셨고 저는 그것을 들고 할아버지를 따라 전차로 효자동역에서 내려 경무대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께서는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은 못 만나고 집으로 돌아 오셨고 저는 팔이 떨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할아버지의 침을 맞았고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분은 필시 지극히 사적인 일로 경무대를 찾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아마도 민원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봅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사적인 일이 아닌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서 시사성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된 데는 취임하신 후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 인지도 모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과 동시에, 또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인 발상에 연유하는 큰 집짓기(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또는 허물기(조선 총독부)를 지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명령에 따라 논바닥에서 아파트가 자라게 하고 산성성으로 고층 아파트가 빼죽거리며 빠져 나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 그런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건국 이래 최대의 난제로 등장한 경제문제를 푸는 데에 여념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연유로 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느 분야나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실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은 건축문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축인들의 실업문제와 그 대안

올해 많은 설계사무실들은 재벌기업들이 질질 끌고 있는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것은 어제까지 밤을 세워 가며 일하던 동료들을 해고시킨 것을 의미하며 남은 직원들의 봉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제난국에 가장 먼저 찬서리를 맞은 것은 제조업 분야가 아니라 건설업과 설계용역 분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직당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건축과 출신 대학생들입니다. 작년에 이어 내년 2월이면 또다시 5,000여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 4학년생들은 사학년(死學年)이라고들 조소적인 표현마저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공부를 더 하려고도 합니다만 부모님들의 눈치를 볼 더 이상의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의 실업문제는 비단 건축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과 학생들의 경우는 길이 있는 듯 합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직당한 건축전문인력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도시관련 행정직의 공익봉사 요원으로 채용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준비교육을 시키고 목표 설정을 적절히 하는 것에 따라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당장 그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제도적 현실에 대한 정확한 앎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그들은 건축·도시관련 민원을 보조하면서 내부에서는 제도적 현실의 문제와 모순들을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장에서는 이 사회가 봉착한 도시·건축환경의 실재를 어깨 넘어서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시 이외의 지역 군 단위, 또는 면 단위까지라도 그들이 투입된다면 도시 위주의 건축서비스가 얼마나 전 국토 - 특히 농촌지역의 건축환경을 저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이 지금은 행정개편에 따라 1,230개의 '면사무소' 들이 '면민의 집' 또는 지역의 복지·문화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들이 전국 단위의 면사무소나, 군, 시의 복지·문화센터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일에 투입된다면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로 쓰임새 있는 자료를 만들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실시 이후 과육에 차 있습니다. 건축이나 개발 프로젝트야 전문성을 요할 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이 드는 일입니다. 소규모 군, 면 단위로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효율적인 참여는 중요합니다. 이제 이 땅의 건축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선배들과 같이 자본의 논리로만 고착화되는 건물의 형식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유(私有)나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유(公有)나 공적인 건축의 의미에 대해 현실 속에서 눈뜨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경기 준비로 날밤을 새는 젊은 사람들은 수천 명이 넘을 것입니다. 한 개의 공공건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한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고, 나아가서 심사까지도 한 번 참여한다면 그 절절하고 잔혹한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자재나 금융의 손실은 숫자로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큰일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타는 정열은 측정되지 않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일으켜 세우고 문화의 나라로 제2의 건국을 꿈꾸는 대통령께서는 바로 이 젊은이들의 정열을 올바르게 가꾸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년 동안 '구조조정', '고통분담', '규제철폐' 라는 말과 '비리와 부패척결' 이라는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조정하고 분담하고 철폐하면 모든 것이 쉽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며칠전 우리는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철폐' 의 항목에 들어있는 것으로 바로 '그린벨트' 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린벨트 또는 생명벨트의 해제

경제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역대 정권이 이룩해낸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린벨트를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세월을 지나며 터득한 지혜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시간에 대한 투자이고 그것은 값을 메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빨리빨리의 감성의 나라에서 느긋하게 지켜온 유일한 것으로 수평으로 확산하는 도시를 다시 한 번 추스리게 하는 생명의 장치입니다. 지구는 35억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 생태계를 이룩해냈고 그중 아주 극미한 부분이 도시주변의 푸르름입니다. 그린벨트 규제를 제한적으로나마 풀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주체는 공청회나 국회가 아니라 자연입니다. 숲은 자연의 집입니다. 자연이나 숲은 절차를 명시화할 관인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도장은 자연을 해친 것만큼의 보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구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상해주시고 절대로 예외조항을 달아주지 마십시오. 시간으로 지킨 땅은 시간에 맡겨주십시오. 그린벨트는 풀었다 조였다하는 벨트가 아니라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터부로 정해놓아야 할 신성한 장치입니다. 땅이 모자라다고 하나 효율이 떨어져 있는 땅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재조정하고 리노베이션 할 공간은 도시에 넘쳐납니다. 이제 건설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란 차원을 넘어서서 바라보아야 할 문화의 행위입니다. 이점 잘 감안하셔서 자연을 정치나 정책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발전과 심의·심사제도

철폐하거나 재조종해야 될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건축문화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거나 퇴보시키는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심의, 심사제도들입니다. 이 짧은 글에서 그 문제점들을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취지나 목적에 비하여 모든 것이 너무나 형식에 빠져있거나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런 장치들이 때로는 비리나 부패의 온상이 되어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숨가쁜 건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건축을 문화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즉 입에 담기도 싫은 저 IMF시대 - 저는 이 말을 비상식적인 시대로 고쳐 부르고 싶습니다만 - 바로 이 시대의 의미란 원칙적인 것, 상식적인 것, 기초적인 것들의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의 문화정책을 논하는 어떤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원은 예산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지원은 잘못된 고리나 비원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의 고리나 그물망을 끊는데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서없는 이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철철반상기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터이니깐요. 다만 이 시대의 올바른 맥을 짚어 고통받는 젊은 건축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연에게 그의 권한을 되돌려주며, 건축가들이 온갖 제도에 머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업에만 전념할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고도 이 땅의 건축문화와 환경에 크게 이바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